

공동체 소식



## 주님 세례 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도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 박철수 유미영(마리안나) 가정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이 공동체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는 가정은 미리 전례분과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겨울 현장학습

- 일시 : 1/20(일) 오후 2:00 ~ 4:00
- 장소 : Snow Creek
- 회비 : \$20
- ☞ 문의는 교육분과장 박희영 카타리나 자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 봉헌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본당 제대와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미리 전례분과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한 자루에 3\$입니다. 축복식은 2/3(일) 중심미사 때 있습니다.

Archbishop's Call To Share

캔사스 대교구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자선 모금 행사입니다. 대주교님의 담화문이 주보 2면에 번역되어 실려 있으며, 모금 방법은 추후 교구에서 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 지난 주일(1/6), 구유 철수 및 지하실 정리에 수고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월 한 달, 매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 모임’은 쉽니다.
- 로렌스 공동체 성경공부 개강 미사 : 1/15(화) 오전 11시, 로렌스 성당 교육관
- 다음 주일(1/20), 중심미사 후 평협 회의가 있습니다.
- 새해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 당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	340	180/161	47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영방(스테파노)	차호섭(요 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이우영(가브리엘)
	안지영(카타리나)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이우영(가브리엘)
	최은미(아 네 스)	김수연(율리안나)
차주	김명은(안 젤 라)	조장균(바 오 로)
	김주연(세실리아)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이사벨), 윤유나(글라라) 유미영(마리안나), 문경윤(베아타)
차주	신혜경(마리아), 박혜정(카타리나) 박계숙(헬레나), 김인자(글라라)

헌금 봉사자

금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구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30	91명	536불	570불
1/6	95명	625불	2,330불



주님 세례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3년 1월 1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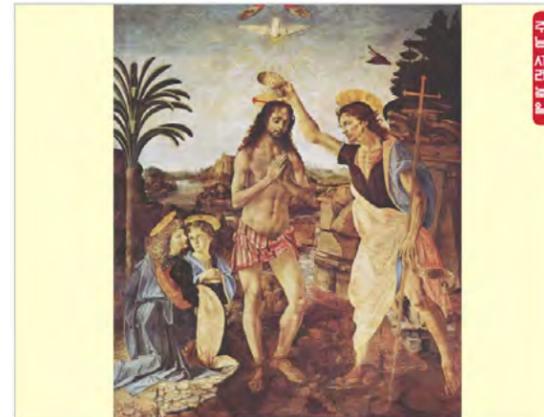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하느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 하셨습니다. 이로써 단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탄생의 세례로 격상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사명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세례

(Leonardo da Vinci, 템페라 1472-1473, 우피치미술관 피렌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마태 3,13-17; 마르 1,9 -11; 루카 3,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리게 하시어 특별한 모양으로 그분을 축성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신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례를 계시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제 1 독서 : 이사 42,1-4.6-7<또는 이사 40,1-5.9-1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주님 - 당신 백성에 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

○ 하느님의 아들들이 주님께 바쳐라. 주님께 그 이름의 영광 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조배 드려라. ◎

○ 주님의 소리는 물들 위에 많고 많은 물 위에 주님께서 계시다 주님의 소리는 우렁차시다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다. ◎

○ 영위의 하느님께서 우렛소리 내시니 창생들이 그 성전에서 영광이여 하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다. ◎

제 2 독서 : 사도 10,34-38<또는 티토 2,11-14; 3,4-7>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요한이 말하였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

복 음 : 루카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 Archbishop's Call To Share(요약)



여러분은 오늘 아침 성당 문을 들어서면서, 손 끝에 성수를 찍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세례성사입니다.

여러분들 중 만일 유아세례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세례성사가 왜 중요한가? 글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죄와 악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느님과 성인들과 함께 하도록 운명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었고,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온 물과 피는 교회의 성사를 예시합니다. 골고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해”의 첫 달에 우리 모두가 가톨릭 신자임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베네딕토 교황께서는 “신앙의 해” 권고 사항으로 우리가 세례 받은 교회에 순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의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례성사로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참된 생명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부음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첫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활동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사도 4,34-35).”

이것이 바로 매 년 캔사스주 동북지역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참여하라고 부름받는 Archbishop's Call to Share 행사입니다. 사실, Call to Share는 캔사스주 동북 지역에 사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힘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Call to Share를 통한 여러분의 봉헌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1) Emily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지만 Emily는 계속 가톨릭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난민인 Peter가 가톨릭 자선 단체를 통해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제공 받았습니다. 3) Stacy의 임신 기간 중에 카운슬링, 의료 혜택, 그리고 여러 도움을 줍니다(중략).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 특히 세례 성사의 크신 선물에 비추어, 기도 가운데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정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남는 것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기부의 의미를 성령께 여쭙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부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신 축복의 표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주님 세례 축일’ 에

캔사스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



# 무디와 불신자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D.L.Moody)는 하루에 1명씩 개인 전도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노력한 분입니다.

하루는 교회에 대해 대단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한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무디 선생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요청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군요. 저는 그 위선자들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러자 무디 선생은 하느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지혜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 두 제자 가운데도 유다라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

다 해도 전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를 부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싫어한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온다면 잠시 위선자들과 만나겠지만 교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그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전국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위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위선자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부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선자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기쁨을 맛 보십시오.”

무디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착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와 거짓과 부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전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13.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신경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공인되고 주로 사용하는 신경은 크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초기의 두 세계 공의회(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나온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고백문” 또는 “가장 오래된 로마 교리서” 라고 할 수 있으며, 600여년에 걸쳐서 완성된 신경으로서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한 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막중한 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경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좌가 있고 그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4-196항).

## 14.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는 주일미사 때, 목주의 기도를 바칠 때, 그리고 그 밖의 기회에 신경을 바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표준 가르침에”(로마 6,17)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주는 우리 신앙의 신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주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온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97항).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목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성 암브로시오).